

생산비 감소에도 한우값 더 폭락...수익성 3년 연속 적자

통계청 2024년 축산물생산비조사 비육우 마리 당 161만원 순손실 비육돈·계란·우유 등 수익 개선

지난해 사료비용이 내려 한우 생산비가 줄었지만 판매가격이 더 큰 폭으로 내려가면서 한우 농가의 수익성이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반대로 비육돈과 계란, 우유 등 다른 가축 농가들의 상황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우 비육우 생산비(생체 100kg)는 127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만 4,000원(1.1%) 감소했다. 비육우 배합사료 단가가 7.5% 저렴해진 영향이다. 그러나 한우 비육우 경락가격(경매낙찰 가격)은 kg 당 1만 7,963원으로 1만 8,619원이던 2023년보다 3.5% 하락했다. 이에 한우비육우 순손실은 1마리당 161만 4,000원으로 집계됐다. 적자로 들어선 지난 2022년 68만 9,000원, 2023년 142만 6,000원

에 이어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송아지·한우번식우 수익성도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적자다. 지난해 송아지 마리당 생산비는 509만 2,000원으로 전년비 2.5%(12만 2,000원) 증가했다. 사료비는 내렸으나 번식물(가임 암소 마릿수 대비 송아지 생산 마리)도 2.8%p 하락했다. 수송아지·한우 암소 산지가격이 각각 3.6%·1.7%씩 올라 순손실은 111만 5,000원으로 집계됐다. 127만 6,000원 손실이던 지난해보다 적자 폭은 줄었다. 육계는 생산비가 줄었음에도 수익성이 크게

낮아졌다. 2024년 육계 kg당 생산비는 전년비 97원(-6.2%) 감소한 1,464원이다. 배합사료 단가와 병아리 구입비용이 하락한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육계 위탁생계가격(계열업체 소속된 농가가 닭을 업체에 납품하는 가격)도 6.9% 내리면서 순수익은 전년보다 31원(19.6%) 감소한 128원으로 집계됐다. 비육돈과 계란, 우유 농가 상황은 나아졌다. 같은기간 돼지 생체 100kg 기준 생산비는 배합사료 단가 하락에 작년보다 1.2% 감소한 36만 6,000원이다. 마리당 순수익은 농가수취가격

상승으로 인해 무려 39.2%(9,000원) 증가했다. 계란 10개당 생산비는 1,285원으로 68원(-5.0%) 내렸으나 산란계 마리당 순수익은 계란 산지가격 상승에 전년보다 3,212원(66.5%) 증가했다. 우유 리터당 생산비는 1.5% 증가한 1,018원이다. 평균급리 상승으로 자본용역비·차입금이 자·고용노동비 등이 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원유 농가판매가격 상승으로 젖소 마리당 순수익은 42만 원, 무려 작년보다 24.3% 상승했다. 홍승현 기자

호남통계청, 줄리안 키타르트 초청 강연

'함께 만드는 지구의 미래' 주제

호남지방통계청은 유럽연합 기후행동 진전 대사로 활동하는 줄리안 키타르트(Julian Quintart)를 초청해 지역통계 전문연구회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사는 '함께 만드는 지구의 미래: 기후위기와 환경 재난 시대에 살아남는 생태 시민 되는 법'을 주제로 실시됐다. 연구회는 우리 지역의 재배 작물과 어획 품종의 변화 등 산업현장은 물론 농어업현장의 변화에 대한 위기감, 글로벌 기후 환경 변화를 제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필요 지표를 생산하는 데

에 도움을 주는 내용들로 구성됐다. 이번 행사에 초청된 강사 줄리안 키타르트는 방송활동 외에도 다양한 환경 이슈에 꾸준한 관심과 실천을 보여주는 기후 환경 활동가이자 방송인이다. 이번 강의를 통해 환경정책의 중요성과 개인의 작은 실천이 가져올 수 있는 미래의 변화에 대해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정구현 호남지방통계청장은 "기후 변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과 함께 기후 환경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전파하고 개개인이 실질적인 참여 행동으로 이어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승현 기자



광주테크노파크가 최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를 독려하기 위한 '투표 참여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광주TP 제공

광주TP "투표 참여가 광주 미래를 바꿉니다"

투표 참여 홍보 캠페인

광주테크노파크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를 독려하기 위한 '투표 참여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사는 유권자 한사람 한사람의 소중한 한

표가 더 나은 광주,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출발점이라는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TP는 '투표가 힘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투표 제도의 중요성을 입주기업 임직원과 광주TP 직원들에게 강조했다.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은 "광주의 산업 전환은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사람 중심, 참여 중심의 지역 혁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투표와 같은 민주적 참여 문화가 광주형 혁신생태계 조성의 중요한 기반"이라고 말했다. 홍승현 기자



해외 패션 브랜드 시즌오프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해외패션 브랜드 2025년 S/S 상품 시즌 오프 행사를 진행한다. 브랜드별 행사 기간은 상이하며 코치·오일릴리·비비안웨스트우드·에트로·로레나안토지아찌 등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롯데광주점 제공

광주새일센터, 장애여성 취업지원 기업체 약정식

직업역량 강화·체계 구축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는 '2025년 장애여성 취업지원사업' 일환으로 지역 내 기업체들간 약정식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사업은 장애여성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체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를 비롯해 장애여성 고용에 뜻을 함께한 10개 기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상호 협력을 통해 장애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고 근로 환경 개선·지속 가능한 고용 창출을 위해 힘을 모은다. 약정서에는 △장애여성 고용 확대 △직무교

육 및 현장업무 지원 △취업 후 사후관리 협력 △기업의 장애인 고용 인식 개선 활동 등 실질적인 협력사항이 포함됐다. 김미희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장은 "장애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는 포용적 사회로 나아가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약정식을 계기로 장애여성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홍승현 기자



광주광역시 선점 맛집

다미정의 밥도둑 '구운 보리굴비'

정직하고 올바른 마음, 최고의 정성!

'다미정 보리굴비'는 엄선된 보리굴비를 전남 영광군 법성에서 천혜의 해풍으로 건조하였습니다. '다미정 보리굴비'는 다미정에서 직접 구워 찐 굴비와는 달리 육질이 부드러우면서 탄탄하고, 맛이 구수하고 담백합니다. 늘 변함없는 마음으로 정성을 담겠습니다.

보리굴비정식



'다미정'에 오시면 정갈한 밑반찬과 함께 맛있는 보리굴비정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구운 보리굴비 선물세트



(※ 모든 굴비는 주문을 받은 후 구워 1마리씩 진공포장 하여, 아이스팩과 함께 선물가방에 담아 배송합니다.)




다미정 예약 및 구입 문의 062) 682-5516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순환로 128번길 73 (풍암동 1153-14)